

'꽃피는 봄, 가족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 가자

전주시, 도서관별 특화 주제 강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 곳곳에 위치한 도서관들이 봄철을 맞아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한 나들이 장소로 제공된다. 전주시는 '꽃피는 봄날을 맞아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꽃피는 봄, 가족과 함께'를 주제로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별 특화 주제 강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숲속도서관인 학산숲속시집도서관과 건지산숲속도서관에서는 봄날

초록의 정경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서 책과 만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학산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들이 문학작품의 소양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시창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지산숲속도서관도 오는 26일 원예 체험 및 명상과 함께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인 '여기는 건지숲'을 진행하고, 오는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연을 담은 도자기' 머그컵, 모양 접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4월이면 꽃으로 물드는 완산공원 아래 위치한 완산도서관에서는 오는 17일 이동한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모임인 '작가는 독자가 되고, 독자는 작가가 된다'를 운영해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해예술마을도서관에서는 이승희 작가의 회화 기획전시 '예술을 품은 마을' 등 지역 예술가의 작품전시로 예술을 즐기는 봄나들이를 경험할 수 있다. 서해예술마을도서관은 또한 4월 중 매주 토요일 현대무용을 통한 바른 자

세와 움직임으로 음악과 함께 자신을 표현하는 '우아하게, 아름답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의 달인 오는 5월에는 전주시 곳곳의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산도서관은 오는 5월 10일 정광덕 동시작가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쓰는 창작 동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자동서관은 오는 5월 31일 선율모리 공연팀의 살롱드국악 '선율에 울려 퍼지는'을 주제로 하는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클래식 인문학 콘서트를 만나볼 수 있다.

/권희성 기자



행복나누리가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10일 노송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산불 피해민들에 작은 도움 되길”

행복나누리,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현금 100만원 기탁

행복나누리(회장 임금순)가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10일 노송동주민센터(동장 채월선)를 방문하여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기금은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과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복나누리는 이전에도 노송동 저소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노송동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국수 잔치를 하는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실천하였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난 극복에도 적극 동참하며,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금순 행복나누리 회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피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채월선 노송동장은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소중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행복나누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주 '노송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산불 피해민들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각 단체들의 따뜻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1회용품 없는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10일 완산구 삼천동 상가 일대에서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는 삼천동의 중심 상권인 용리로(전주완산소방서와 우림성당 사이)에 밀집된 상가 일대에서 현수막과 표지판을 활용해 거리를 지나는 시민

들에게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시민 활동가'들도 이날 캠페인에 동참해 거



전주시는 10일 완산구 삼천동 상가 일대에서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권희성 기자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 위한 협업체계 강화

전주시,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방문해 방안 논의

전주시는 10일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동학대 대응기관별 각 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아동과 아동의 가족, 지역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

다. 특히 시는 이날 아동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아동리포터에 대한 교육 △가족 중심 실천 및 지역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효과적인 사례 개입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학대 대응인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가족 중심 실천 및 지역 조직화를 통한 사례관리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을 통한 아동학대조사와 사례 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소연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적인 역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건보 전주남부·북부지사와 간담회 가저

시민건강 증진 협력방안 논의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10일 의정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지사장 정상용)·북부지사(지사장 고미숙)와 간담회를 갖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비 중 담배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주시의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소송이 공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결의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담배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결의안은 제4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식적인 지지 의사가 밝혀진다. 남관우 의장은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는 것은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술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